



논술의 기초

새뫼-NewMountain

소개글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입 논술의 기초 학습

목차

1	논술의기초 - 1.논술첫걸음	4
2	논술의기초 - 2.논술맛보기	16
3	논술의기초 - 3.요약연습	21
4	논술의기초 - 4.실전요약	26
5	논술의기초 - 5.제시문비교	33
6	논술의기초 - 6.제시문 분석	39
7	논술의기초 - 7.주장 및 관점	47
8	논술의기초 - 8.의견 제시	52
9	논술의기초 - 9. 비판	58
10	논술의기초 - 10.종합	62

01

논술의 기초 - 1. 논술 첫 걸음

논술의기초 - 1.논술첫걸음

2014.12.30 09:21

1.논술 첫걸음

1.1. 논술 기출

대 학		논 제
가톨릭대 120분	공통	* 우리나라의 상황을 나타내는 (다)와 (라)를 참고하면서, (가)와 (나)를 활용하여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전(全) 소득계층의 ①, ②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250~300자 / 20점)
	문과 간호	[문항1] (가)는 1980년대의 이야기이고 (나)는 2013년 현재의 상황이다. 갈등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문항2] (라)와 (마)를 활용하면서 (다)의 '보편적 디자인' 이 추구하는 정신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갈등에 대한 해결의 방향을 논술하시오.
건국대 120분	인문	[문제1]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에 제시된 측정결과를 분석하시오. (501~600자) [문제2]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인물 '사임' 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901~1,100자)
	상경	[문제1] (가)와 (나)에 나타난 '소유' 에 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나' 의 주장을 분석하시오. (501~600자) [문제2] : 수리논술 (생략)
경기대 120분	공통	[문항1] (다)와 (라)를 활용하여 (가)의 여성 주인공이 시집살이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 묘사된 여성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750±50자) [문항2] (가)의 배분의 문제에 대해 (나), (다), (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서술하고, 그 각각의 장·단점을 논술하시오. (750±50자)
경희대 120분	인문 예체능	[문제 I]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주인공, (다)의 화자, (라)의 '현자' 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1101자 이상~ 1200자 이하 : 배점 70점]
	사회	[문제 I]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5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다)~(마)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I] : [501자 이상~600자 이하 : 배점 30점] - 수리논술 생략
고려대 100분	인문 공통	I. ①의 세 의견을 활용하여 ②와 ③을 설명하고, 그 세 의견 각각의 장단점에 주목하여 평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II. ④를 읽고 다음의 논제(1-3) 에 답하시오. (25점) : 수리논술

<p>광운대 120분</p>	<p>인문 공통</p>	<p>[문제1] (가)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나)의 밑줄 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대하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다)의 밑줄 친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대응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두 입장이 갖는 차이와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750± 50자)</p> <p>[문제2] (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하여 (나)와 (다)의 밑줄 친 핵심어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의 관계에 대하여 (라)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50점, 750± 50자)</p>
<p>단국대 120분 연필</p>	<p>인문 공통</p>	<p>[문제1] 다음 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p> <p>1) (가)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은 뒤, 그 단어를 이용하여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p> <p>2) (가)에 제시된 태도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나)에서 찾아 설명하고, (가)의 입장에서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요약하시오. (300자 내외) (15점)</p> <p>[문제2] (가)와 (나)의 논지를 (다)와 관련하여 각각 설명하고, (다)에 나타난 찬반론 중 자신의 관점과 대립되는 견해를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30점)</p> <p>[문제3] (가)~(다)를 근거로, (라)의 표에 제시된 상황을 비판하고, (마)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p>
<p>덕성여대 120분</p>	<p>인문</p>	<p>[전공1]</p> <p>1)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와 (나)의 견해를 대비점이 드러나도록 요약하시오.(150자 내외).</p> <p>2) (다)는 반지 이야기를 통해 논의를 펼치고 있다. (가)와 (나) 중 한 견해를 택하여 (다)의 논증을 비판하거나 옹호하시오.(350자 내외).</p> <p>[전공2] 급속히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의 상황이 결코 남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가), (나)에 담겨 있는 효도의 본질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고, 근거를 들어 중국의 ‘효도법’ 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서술하시오. (500자)</p> <p>[전공3]</p> <p>1) 만족스러운 ‘삶의 질’ 을 얻기 위해 (가)와 (나)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200자 내외)</p> <p>2) (다) 시에 나타난 할머니의 삶을 사례로 들어, (가)와 (나) 가운데 한 가지 관점에 서서 다른 하나를 비판하시오.(300자 내외)</p>
<p>120분</p>	<p>사회</p>	<p>[전공1]</p> <p>1) (나)와 (다)의 내용을 토대로 글 (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투표자 국립박물관 할인입장권 지급 제도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이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50%).</p> <p>2) (라)의 입장을 고려할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정책이나 운동 두 개 이상 제시하시오. (250자 내외, 50%).</p> <p>[전공2] (가)와 (나)를 읽고 상황을 비교분석하고 관리인 B와 관리인 C가 각각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지문에서 나타난 내용만을 활용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시오. (500자 내외)</p> <p>[전공3]</p> <p>1) (가)와 (나)를 읽고 두 개의 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250자 내외, 50%)</p> <p>2) 어느 기업이 시장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고 혁신적 기능을 포함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광고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실적과 이윤은 증가하지 않았다. 글 (가)와 (나)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 같은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250자 내외, 50%)</p>
		<p>[문제1] (가)는 빈곤의 개념을 정리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서 드러난 욕구의 차이를 서술하시오.(150 ~ 180자) [10점]</p> <p>[문제2]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한 이유를 (라)와 (마)에서 찾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p>

<p>서울 시립대 180분</p>	<p>인문 공통</p>	<p>[문항1] (가)의 내용을 250자 정도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마)에서 모두 찾아 (가)와의 차이점을 각각 밝히시오. (총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2] 아래 (그림1)과 (그림2)는 상품별 월 판매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보고 아래의 물음1),2)에 답하시오. (총 500자 내외, 배점 20점) 1) (그림1)에서 'A' 상품의 추이가 전반적인 경기에만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B', 'C' 는 각각 어떤 상품에 해당할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6점) 2) (그림2)에서 'a' 는 이전까지 자동차가 없던 국가에 처음 출시된 자동차라고 가정할 때, (1) 'b'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품 하나를 예로 들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4점) (2) 'c' 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판매량을 증진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단, 다른 부류의 상품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품질 향상, 디자인 향상 등)은 제외하시오. (10점) [문항3] 위 에서 병을 바라보는 '나' 의 시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가)~(마)의 주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200자 내외, 배점 50점)</p>
<p>서울여대 120분</p>	<p>인문 공통</p>	<p>[문항1] (가)의 관점에서 (나)의 인간 중심주의와 (다)의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라)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문항2] 다음에 제시된 도표는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 관련 자료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들 자료에서 한국 사회의 인터넷 문화가 가지는 문제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두 연령층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시오.</p>
<p>성균관대 120분</p>	<p>인문 공통 1교시</p>	<p>[문제1] (1)~(5)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문제2] [문제1]의 대립 구도 하에서 (보기1)의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자료)가 보여주는 두 현상을 [문제1]의 입장(들)과 연관시켜 각각 설명하시오. [문제4] [문제1]의 (들)을 활용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만 택하여 논술하시오. 그리고 (보기2)를 참고하여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시오.</p>
<p>성신여대 120분</p>	<p>인문 공통 1교시</p>	<p>[문제1] “기술이 사회를 결정하는가, 사회가 기술을 결정하는가?” 에 관한 (가), (나), (다)의 세 관점을 비교·요약하고, 각 관점을 적용하여 아래 (보기1)을 설명하시오.(800자 내외) [문제2] 아래 (보기2)는 영화 (나는 전설이(다)에서 소개된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과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2)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하여 (가), (나), (다) 각각의 관점에서 내릴 수 있는 평가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 영화에 묘사된 재앙을 예방하는 가장 적합한 방안에 대해 (가)~(다)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 근거를 제시하여 논하시오.(1,000자 내외)</p>
<p>세종대 120분</p>	<p>인문 공통</p>	<p>1.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행복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500자, 30점) 2. 제시문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해 제시문 (다)의 논지를 옹호하거나 반박하시오.(1100~1200자, 70점)</p>
<p>숙명여대</p>	<p>인문 공통 1교시</p>	<p>1. (다)의 관점에서 (표1)을 참조하여 (가)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태도와 (나)의 주장을 각각 비판하시오.(1,000±100자) 2. (가)의 논지를 통해 (나)와 (다)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에서 말하는 ‘박탈’ 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p>
	<p>인문</p>	<p>문제1. (가)에서 설명하는 변화의 내용을 요약한 후 이를 토대로 (나)와 (다)를 비교□평가하시오.(1,000±100자, 60점) 문제2. (가)에 근거하여 (나)에서 설명하는 길가메시 왕의 선택과 결정을 논하시오.(800±80자, 40점)</p>

<p>승실대 120분</p>	<p>경상</p>	<p>문제1. (나),(다),(라)에 근거하여 (가)를 논하시오.(800±80자, 40점) [문항1] (다)의 표준편차 공식을 이용하여 (표1)의 각 항목에 대한 국가 간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그 경제적 의미를 일몰일가의 법칙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문항2]~[문항 3-2] : 수리논술 생략</p>
<p>아주대 120분</p>	<p>인문 계열 공통 1교시</p>	<p>[문제1-1] (가)와 (나)가 기존 경제학의 합리성에 대하여 어떤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비교·대조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문제1-2] (다)를 이용하여 (가)를 뒷받침하는 글을 쓰시오. 단, 다음 순서를 따르시오. (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를 요약한 뒤, (다)의 사례가 어떤 점에서 (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기술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문제2-1] (가)에 제시된 그림의 모형에 따라, 취업에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네 가지 서로 다른 귀인의 예를 들어보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5점) [문제2-2] (가)에 비해 (나)는 ‘특수-전반’ 차원을 귀인에 추가한 것이다. 이 추가된 차원이 낙관적 귀인양식 및 비관적 귀인양식에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차원의 반대 측면(특수□전반)을 고려하여 기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5점)</p>
<p>연세대 120분</p>	<p>인문</p>	<p>[문제1]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문제2]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p>
	<p>사회</p>	<p>[문제1]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네 들의 순서를 정한 뒤,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문제2]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 네 들에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p>
<p>이화여대 100분</p>	<p>인문 의류 사범</p>	<p>1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에 나타난 관객의 웃음을 설명하시오. [30점] 2. (라)와 (마)에서 언급하고 있는 웃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3. (바)와 [사]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아]를 바탕으로 (바)와 [사]의 웃음을 분석하시오.[40점]</p>
	<p>사회 경영</p>	<p>1. (가)~(라)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가)와 (나)를 A, (다)와 (라)를 B로 묶을 때, 빈곤에 대한 A와 B의 시각 차이를 대비하시오. (2) 빈곤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가)와 (나)의 차이, (다)와 (라)의 차이를 각각 서술하시오. 2. (마)와 (바)의 빈부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사]를 비판하시오. [30점]</p>
	<p>공통</p>	<p>[문제3] [30점] : (1)~(2), 수리논술</p>
<p>인하대 120분</p>	<p>공통</p>	<p>문항 1 [70점] [문항1-가] (가)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문항1-나] (인하대학신문)은 학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이 신문의 편집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학교의 구성원인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음) 두 방안 중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50점)</p>

	<p>문항 2 [30점] [문제] (다음)에 제시된 갑, 을, 병, 정 의 주장은 모두 옳다. (표1)~(표 4)를 활용하여 각 주장을 뒷받침하라. (600±100자, 30점)</p>
<p>중앙대 120분</p>	<p>[문제1]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관계 맺음 방식'의 특징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인문 사회 [문제2] (라)에서 사물을 명명하는 '남자'의 행위가 갖는 한계를 (마)와 (바)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3] (사)와 (아)에 나타난 오류를 각각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30점, 500~520자]</p> <p>[문제1] '모방의 동기와 결과'라는 관점에서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경제 경영 [문제2] (마)의 동굴 비유를 이용하여 (다)에 나타난 주인공 게리가 처한 상황과 행위를 해석하고, (바)의 논지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3] 두 요인 '1인당 실질 GDP'와 '초·중등학교 진학률'의 자료를 위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사)의 논지를 찬성 또는 반대하시오. 단, '삶의 질'은 '초·중등학교 진학률'만 고려하고, [단계4]에서 □=0.2를 가정한다. [30점]</p>
<p>한양대 120분</p>	<p>[문제1]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타모스 왕이 지닌 문자에 관한 견해를 평가하시오. (600자, 40점) 인문 [문제2] 다음 (조건)에 따라 (라)의 ㉠에 대해 답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800자, 60점) 1. (나)에 제시된 '정보'와 '지식'의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시오. 2. (라)의 ㉠을 (다)의 ㉠에서처럼 재구성하여 논지를 강화하시오.</p> <p>[문제1] (가)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의 흡스와 흠의 입장을 바탕으로 각각 추론하여 설명한 후, (가)와 관련된 사회적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를 참조하여 제시하시오.(600자, 50점) 상경 [문제2] 1~4, 수리 논술</p>
<p>한국외대 120분</p>	<p>[문제1] (A)와 (B)의 공통 핵심어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A)와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동양어 통번역 경향 [문제2] (A)와 (B)의 공통 핵심어를 활용하여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 4)를 분류한 다음 비교 분석하시오. (700자 내외) [문제3] [문제2]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5)를 논하시오. (700자 내외)</p> <p>[문제1] (A)와 (B)의 공통 핵심어를 찾아 영어로 쓰고, 두 의 요지를 우리말로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서양어 중국어 일본어 [문제2] (A)와 (B)의 공통 핵심어를 사용하여 (자료1)과 (자료2)의 주요 논지를 비교 분석하고, (자료1)을 바탕으로 (자료2)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3] (B)와 (자료3)을 활용하여 (자료4)에 등장하는 장자의 주장을 논하시오. (800자 내외)</p>
<p>한국외대 120분</p>	<p>[문제1] (A)와 (B)의 공통 핵심어를 우리말로 쓰고, 두 글의 논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영어 사회 LD [문제2] (A)와 (B)의 공통 논지와 유사한 (자료)를 모두 찾아서, 해당 (자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3] 위의 [문제2]에서 서술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와 상반된 논지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800자 내외)</p> <p>[문제1] (A)와 (B)의 공통 핵심어를 우리말로 제시하시오. 그리고 공통 핵심어를 중심으로</p>

	상경 글로벌 사범	로(A)와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2] (A)와 (B)의 요지에 따라 (자료1), (자료2), (자료3)을 비교 분석하시오.(700자 내외) [문제3] [문제2]의 분석 내용과 (자료 4)를 활용하여 (자료 5)에 주어진 창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하시오. (700자 내외)
항공대 120분	공통	[문제1] (나), (다), (라)에서 나타나는 커피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에 나타나는 차의 의미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2] “인간의 사회적 관계” 라는 관점에서 (가)와 (나)를 비교하고, 이 을 참고하여 “인간 본연의 가치와 책임”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3] [문제2]의 (나)의 관점에서 (도표1), (도표2), (도표3)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표4)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홍익대 150분	공통	[문제1] (가)의 놀이 개념에 대한 시각을 요약하고, 이 시각을 바탕으로 (나)~(라)에서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이의 의미를 (나),(다),(라)의 순서대로 각각 논하시오. (700±100자)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문제2] (사)에서 밀줄 친 신경제(新經濟)가 출현하게 된 원인을 (사)의 본문에서 찾아 서술하고, (사)의 내용이 (마)와 (바)의 견해에 대해 갖는 의미를 논하시오. (700±100자) [경영대학 및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문제3] (아)와 (자)에 나타난 사상에서 개인의 권리(사권)에 대한 견해를 각각 설명하고, 이 두 견해를 각각 (차)의 입장과 비교하여 논하시오. (700±100자) [법과대학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1.2. 논제 분석

무엇을(W), 무엇으로(B), 어떻게 하라(H)

제시문(1)을 요약하시오.		
제시문(1)을	W	
요약하시오.	H	

제시문(가)의 신호의 유형을 ‘핸디캡 원리’ 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시오.		
제시문(가)의 신호의 유형을	W	
‘핸디캡 원리’ 를 중심으로	B	
요약 정리하시오.	H	

제시문(마)와 (바)의 요지를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제시문(사)에 나타나는 모녀간의 갈등을 분석하시오.		
제시문(마)와 (바)의 요지를	w	B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h	
제시문(사)에 나타나는 모녀간의 갈등을		W
분석하시오.		H

제시문(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 속에 나타나는 개별성의 적용범위를, 소수집단의 의견으로까지 확대하여 제시문(나)의 사건을 설명하시오.		
제시문(가)의 논지를	w	B
요약하고, 개별성의 적용범위를 소수의견으로까지 확대하여	h	
제시문(나)의 사건을		W
설명하시오.		H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급훈을 분석 평가한 다음, 〈다〉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설명하시오.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w	B1
요약하고,	h	
〈나〉의 급훈을		W1
분석 평가한 다음,		H1
〈다〉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B2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고	w h	W2
그 프레임을 설명하시오.	w	H2

- 논제 분석 연습

- * 제시문(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동국대 2011)
- *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여기서 찾아낸 논거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제시문(다)의 현상을 설명하라. (서강대 2011)
- * 제시문[가], [나], [다], [라] 각각에 나타난 창의성의 발현 요건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동국대 2012)
- * 지문 (가)의 ‘미꾸라지의 행위’와 지문 (나)의 ‘선한 행위’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가톨릭대 2011)
- * 자기와 타자의 관계에 대한 (가)~(다)의 입장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건국대 2011)
- * 제시문에 나타난 ‘이주’와 ‘잔류’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경희대 2012)
- * 제시문(가), (나), (다), (라), (마) 각각을 요약하고, 개념의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이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타당성을 논하라. (서강대 2012)
- *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를 요약하고,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이화여대 2012)
- * 제시문(가), (나), (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이 관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연세대 2011)
- * 아래 표는 주요 기업의 현금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주요 기업의 현금 비중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추이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시문(라)와 (마)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하시오. (국민대 2012)
- * (가)에 제시된 경제성장 자료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 (다), (라)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논의를 전개하라. (서강대 2010)
- * 아래 (ㄱ) 그래프는 가상정부의 12개월(1년) 간 현금흐름을 월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① (ㄱ) 그래프 상에서 두 종류 선의 모양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각각 3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② 스톡과 플로우의 개념을 토대로 정부의 저축량(현금잔고) 월별 추이를 (ㄴ) 그래프 상에 작성하시오. (한국외대 2012)
- * 위의 [Ⅱ]를 바탕으로 [Ⅲ]에 제시한 표의 결과를 해석하시오.(한양대 2012)

- * 지문 (가)와 지문 (다)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와 ‘리더십’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가톨릭대 2011)
- * 제시문(나), (다), (라)를 근거로 하여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가)의 밑줄 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와 그 주장이 실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해 보시오.(경기대 2011)
- * 제시문(바)가 주장하는 인간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시문(가)와 (다)에서 각각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논술하시오. (경희대 2012)
- * 제시문(1)과 제시문(3)의 논의에 근거해서, 제시문(4)의 ‘나’가 생각하는 로스엔젤레스 폭동의 원인들에 관해 논하시오.(고려대 2011)
- * 제시문(라)의 <도표 1>과 <도표 2>를 통해 지리적·경제적·문화적 요소가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분석하시오.(<도표 3>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건국대 2010)
- * 제시문(가)의 그림과 제시문(나)는 현대예술의 특징에 관련된 것이다. 제시문(나)를 참조하여 제시문(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그러한 설명이 가능한 이유를 쓰시오. (동국대 2009)
- * 제시문(나)에 따르면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제시문(나)에 나오는 논거 이외에 혈통 계승의 측면에서도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불합리한 것임을 두 도표를 활용하여 밝히시오. (서울대 2008)
- * 아래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와 [문제1]의 두 입장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밝히시오. (성균관대 2012)
- * <표1>과 <표2>에 나타난 현상들을 [문제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에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성균관대 2012)
- * 아래 <그림>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문제1]의 입장들에 제시문(라)의 <도표1>과 <도표 2>를 통해 지리적·경제적·문화적 요소가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분석하시오.(<도표3>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것)(건국대 2010)
- * 제시문(가)의 그림과 제시문(나)는 현대예술의 특징에 관련된 것이다. 제시문(나)를 참조하여 제시문(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그러한 설명이 가능한 이유를 쓰시오.(동국대 2009)
- * 제시문(나)에 따르면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제시문(나)에 나오는 논거 이외에 혈통 계승의 측면에서도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불합리한 것임을 두 도표를 활용하여 밝히시오.(서울대 2008)
- * 아래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와 [문제1]의 두 입장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밝히시오. (성균관대 2012)
- * <표1>과 <표2>에 나타난 현상들을 [문제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에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성균관대 2012)
- * 아래 <그림>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문제1]의 입장들에 근거하여 해석하시오. (성균관대 2012)
- *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제시문(가)와 (나)의 입장을 토대로 아래 <그림1>과 <표1>에서 추론 가능한 국제 관계를 설명하시오.(숙명여대 2011)
- * <그림1>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변화 원인을 제시된 <표 1>을 이용하여 추론하시오.(숭실대 2012)
- * (자료3)의 관점에서 (자료4)에 나타난 제도의 취지를 옹호하고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시오. (한국외대 2012)
- * 제시문(마)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다)의 내용을 비판하시오.(경희대 2011)
- * 제시문(마)는 오늘날 한국의 가족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제시문 (바)와 (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마)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시오.(광운대 2011)
- * ‘여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정한 뒤, 자신이 정한 입장의 반대편 논거들을 담은 제시문을 모두 찾아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서울시립대 2011)
- * 구속된 조 모씨의 변호사로서 제시문㉔의 입장을 반박하고, 조씨를 변론하시오.(서울여자대 2012)
- * 제시문(다)의 ‘폴란드 의사의 행위’를 제시문(가)□(나)에 근거하여 지지하거나 반박하되, 그 이유를 우리 사회의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숭실대 2012)
- * 제시문(가)의 관점에서, 제시문(라), (마), (바)를 각각 비판하라. (서강대 2011)
- * 제시문(사)에 나오는 합리성에 대한 시각을 서술하고, 그 시각에 입각하여 제시문(마)와 (바)의 내용을 논하시오.(서울여대 2011)
- * 제시문(3)에 근거하여 제시문(2)의 테이레시아스와 제시문(4)의 도서의 발언에 관해 논평하시오. (성균관대 2011)
- * 제시문[바]와 [사]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아]를 비판하시오.(이화여대 2011)
- * 제시문(마)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다)의 내용을 비판하시오.(중앙대 2011)
- * (가)의 ‘창조적 파괴’와 (나)의 ‘네거티브즘’ 개념을 적용하여, (라) 글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해법을 논술하시오. (건국대 2010)
- * 제시문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이나 견해, 그리고 이들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

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감정’ 과 ‘법적 안정성’ 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 (동국대 2010)

* 제시문(다), (라)는 다문화가정과 관련해 공통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점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제시문(마)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경희대 2009)

* 제시문(나), (다), (라)를 활용하여 (가)의 ‘우리’ 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술해 보시오.(경기대 2009)

1.3. 논제 서술어

* 써라, 적어라, 작성하라, 서술하라, 기술하라 - 일반적인 논제로 ‘설명하라’, ‘논술하라’ 등의 어떠한 논제와도 바꾸어 쓸 수 있는 것들. 목적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논술문의 성격이 달라짐.

* 논하라, 논술하라, 논의하라, 논평하라 -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을 펴라는 것들.

* 설명하라 - 주어진 글의 내용이 갖고 있는 본질을 유지한 채, 풀어 쓰라는 것.

* 정리하라 - 여러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라는 것.

* 요약하라 - 주어진 글을 짧게 줄여 기록하라는 것.

* 완성하라 - 주어진 글의 부분과 내용의 연관이 있는 내용을 적으라는 것.

* 비교하라 - 여러 내용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라는 것.

* 대조하라 - 주로 상대적인 의미를 밝히라는 것.

* 분류하라 -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게 나누어 쓰라는 것.

* 나열하라 - 요구하는 기준(조건)에 맞는 내용(상황)을 늘어놓으라는 것.

* 분석하라 - 대상을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고 각각의 관계를 밝히라는 것.

* 비판하라, 반박하라 - 어떤 의견(주장)이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옳지 않은 이유를 밝히거나 거기에 대항하는 옳은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라는 것.

* 옹호하라, 지지하라 - 어떤 의견(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옳은 이유를 밝히라는 것.

* 평가하라 -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가치가 있고 없음을 일정한 기준을 들어 판단하라는 것.

* 해석하라 - 어떤 내용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풀어 밝히라는 것.

* 추론하라 -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 내라는 것.

* 제시하라 -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보이라는 것.

* 해설하라 - 어떤 문제나 내용을 알기 쉽게 풀라는 것.

1.4. 내용 구성

- 문장 및 문단의 구성

① 한 문장은 최대 50자가 넘지 않도록 (띄어쓰기 포함)

- ② 한 문단은 최대 5-6문장을 넘지 않도록
- ③ 한 문단은 대략 원고지 1~1.5장(200자~300자) 분량으로
- ④ 가급적 중심문장을 앞에 두는 두괄식으로

- 글을 나열할 때

- ① 각 항목 간에 분량은 균형을 맞추어
- ② '발전'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 ③ 뒤로 갈수록 자신 있고 흥미가 있는 것을 두어야
- ④ 작은 얘기는 앞에 두고, 큰 얘기를 뒤로 가게
- ⑤ 구체적인 얘기는 앞에 두고, 추상적인 얘기를 뒤로 가게

- 비교 대조할 때

'A'는 'a', 'b', 'c'의 속성이 있고, '가'는 'ㄱ', 'ㄴ', 'ㄷ'의 속성이 있다고 할 때,

- ① 가급적이면 'a', 'ㄱ' - 'b', 'ㄴ' - 'c', 'ㄷ'의 방법으로
- ② 짝이 맞지 않거나, 비교할 속성이 많아지면 'a', 'b', 'c' - 'ㄱ', 'ㄴ', 'ㄷ'의 방법으로

- 현상, 원인, 결과, 해결의 방법으로 구성할 때

'해결'은 '결과'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 상반된 의견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때, 또는 비판할 때

- 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의견(비판할 내용)을 먼저 들고
- ② 그 의견이 논리적으로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 후에
- ③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제시

- '정', '반', '합' 적(서로 다른 두 입장을 하나로 합하는)으로 내용을 구성할 때

- ① 결론, 혹은 자신의 관점과 가까운 것은 '반'으로
- ② '정'과 '반'이 균형을 이루도록 내용도 분량도
- ③ '합'은 하나를 아래에 두고 다른 하나를 위에 얹는 방식으로, 즉 " '반'을 바탕으로 하여, '정'한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임

02

논술의 기초 - 2 논술 맛보기

논술의기초 - 2.논술맛보기

2015.01.01 08:56

2. 논술 맛보기

2.1. 관계 - 2015 단국대 수시 (변형)

* 이 글의 필자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를 지칭하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 글의 내용을 설명 하시오.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껏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2.2.호주제 - 2014 한양대(에리카) 모의2차

* 아래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을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50~70자)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를 잇는 순위, 혼인에서의 신분 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 관계 형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현실적 가족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송조 사상, 경로 효친, 가족 화합과 같은 전통 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 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생각이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자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한 가족 관계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그런데 _____
- 따라서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2.3 과학자 - 2015 경북대 AAT 모의

*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학은 세계를 정신적으로 파악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인간의 실천적이며 사회적인 활동이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사물의 성격과 구조를 탐구하고 사물의 현상에 속한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이론체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론체계는 종교나 예술과 달리 인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학의 힘은 경험적 검증을 거친 법칙적이고 객관적 진리라는 데 있다. 인간은 과학의 덕택으로 자연과 사회의 법칙을 인식하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과학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서 오늘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과학의 이론체계가 인간의 삶에서 생겨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학을 올바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며 법칙적이라는 이론적 특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과학은 과학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 과학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초하고 있고 그것이 형성되는 생활세계를 밝혀야 한다. 과학적 이론 자체는 이미 과학자의 기대와 추측을 통해 성립된 것이며, 이때 과학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식 집단의 전통과 성향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과학적 인식은 그러한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과 연구를 위해 경제적이고 물질적 수단이 제공되는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과학적 이론이 성립되는 과정에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 속에 있는 과학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우며, 나아가 그렇게 성립된 과학은 어떤 한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성립된 과학적 이론체계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정이 가능한 믿음의 체계로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과학자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과학자는 책임질 이유

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식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식칼을 제조한 사람에게 살인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이론의 오용에 의한 결과는 그 이론을 연구한 과학자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윤리적 가치는 그 기술의 사용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원자 폭탄 제조의 책임을 맡았던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는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을 가질 뿐이고 과학의 이용과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는 과학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말에는 과학이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이 시대나 적용 대상이 달라지더라도 변함없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이 선하다거나 옳다는 등의 가치판단과 무관한 것임을 의미한다.

6-1.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아래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40자 이내)

“과학적 인식도 ‘세계 안에 있는 인간’ 의 한 존재방식이다.”

이 말의 뜻은 _____

6-2. 제시문 (나)의 요지를 아래 형식으로 요약하십시오. (25자 이내)

과학의 오용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_____

2.4. 혼돈 - 2014 국민대 수시

[문제 1] (가), (나), (다)의 논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의 단락을 작성하십시오.

(가)

장자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우화'가 실려 있다.

남쪽 바다의 임금을 숙(□)이라 하였고, 북쪽 바다의 임금을 흘(忽)이라 하였으며, 그 중앙의 임금을 혼돈(混沌)이라 하였다. 숙과 흘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때마다 그 둘을 극진히 대접했다. 숙과 흘은 혼돈의 은덕을 갚을 길이 없을까 의논했다. '사람에게는 모두 일 곱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혼돈에게만 이런 구멍이 없으니 구멍을 뚫어줍시다.' 그래서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뚫어주었는데 7일째가 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여기에서 '숙'은 남쪽 바다의 임금으로 '밝음'을 대표하고 '흘'은 북쪽 바다의 임금으로 '어둠'을 대표한다. 이 둘은 각각 '빨리 나타나는 것'과 '갑자기 사라지는 것' 곧 만물의 '생성'과 '괴멸'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앙의 '혼돈'은 아직 이런 분별이나 경계가 생기기 전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우포늪은 1억4천 만 년 전 한반도의 생성과 함께 태어났다. 이 땅에 사람이 살기도 전에 낙동강 일대의 지반이 내려앉고 그 위에 물이 차 높이 됐다.

창원과 마산 일대에는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00여 개의 늪이 있었다. 그러나 물이 깊지 않고 토양이 좋은 늪지대는 대부분 논밭으로 개간돼 버렸다. 이제는 원시의 모습을 간직한 늪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얼핏 보기에 우포늪은 더럽다. 그러나 지렁이 한 마리 살기 힘든 오염된 강줄기와는 크게 다르다. 스스로 완벽한 자정 작용을 한다. 물가에 뿌리를 박고 있는 줄, 갈대, 버들이 인과 질산 등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고 산소를 뿜어낸다. 1헥타르에 들어가는 환경 정화 비용은 40만 달러. 따라서 150헥타르에 달하는 우포늪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연 정화조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우포늪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늪은 수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의 고리입니다. 늪 주변에 수많은 곤충들이 있어야 새가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발원지이죠. 우포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자궁 같은 곳입니다."

(다)

'프랙털'이란 말의 기원은 이 기하학의 개념을 정립한 선구자인 미국의 수학자 만델브로트가 1975년 '수학 및 자연계의 비정규적 패턴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담은 자신의 에세이집 표제를 프랙털이라고 붙인 데서 출발한다.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은 0차원, 1차원, 2차원처럼 정수의 차원을 가진 형태만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수학적으로 미분이 되지 않는 1.26 또는 1.48차원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는 흉측한 '괴물'로 여겨 왔다. 그러나 만델브로트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무질서한(비정규적인) 형태나 운동은 오히려 정수의 차원이 아닌 모양을 갖고, 또 이런 기하학적 형태를 따라 운동한다는 충격적 주장을 함으로써 전 세계 수학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즉, 삼라만상이 온통 불규칙하고 혼돈스럽게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랙털 기하학이란 새로운 수학적 언어로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규칙성을 가지고 자기 유사성을 반복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분의 무늬를 보고 전체를 안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형태라고 할까. 자연계에는 겨울에 내리는 눈의 결정이나 고사리 잎처럼 이런 프랙털의 구조를 가진 것이 많다.

03

논술의기초-3.요약연습

3.1. 직접민주주의

- 2015 모의수능평가 9월 국어A형

* 다음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 시하는 경향이 커져 왔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 자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둘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영화는 민간화와는 달리,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의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참여 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의사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들도 정책 결정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1415)

3.2. 명 제

* 다음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 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 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 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 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 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 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 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 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 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 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 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 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 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 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경이 좋다.” 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 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 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 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 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1492자)

3.3. 법과 정의

* 다음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 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

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서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서 따온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1697자)

3.4. 인센티브

- 2015 모의수능 6월 국어A형

* 다음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 ■ × 성과’ ($0 \leq \square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 프리미엄 :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1829)

04

논술의기초-4.실전요약

논술의기초 - 4.실전요약

2015.01.06 08:01

4. 실전 요약

4.1. 대학의 역할

- 2015 인하대 모의논술

* 다음 제시문의 논지를 3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300±50자)

학생은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온다. 이렇게 그들이 해야 할 과제와 그들이 처한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강의나 실습시간 그리고 학업과정의 계획은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부분적인 도움을 줄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대학이라는 세계에서 강의든지 실습이든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공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 직업과 관련된 지식의 준비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화 및 선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인 통념과도 연관이 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요구된다. 이에 대학에서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규범과 가치 등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사회화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대학에 거는 기대는 단순한 직업교육 그 이상의 것이다. 대학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근원적인 지적 욕구를 실현하는 데 있다. 특히 인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며 그 앎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 이러한 알고자 하는 욕구는 관찰을 통해서, 체계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객관화에 대한 훈련으로서 자기비판을 통해서 실현된다.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의미와 방법은 '우니베르지타스(Universitas: 교사와 학생을 의미, 후에 우주라는 의미로 변형)' 라는 대학의 명칭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지식의 우주이다. 따라서 대학이 전문학교의 집합소가 되면 대학의 의미를 상실한다. 학문의 생명력은 전체와의 관계에 근거한다. 모든 개별적 학문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특수 학문의 전체성과 지식의 전체성에 대한 이념을 심어주는 데 있다. 이렇게 전체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철학적 사고' 에 바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학문은 철학적이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고, 사전적이고 기계적이지 않으며, 수집에만 몰두하거나 기술적이지만은 않으며, 단편적인 것에 빠져들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념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직업을 위한 전문교육에도 포함한다. 특별한 직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미 알려진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사고를 위한 능력을 단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지적이고 학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대학은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단지 기초만을 마련해줄 뿐이며, 그 다음은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

이와 같이 대학은 전문성을 가르치는 학교임과 동시에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전수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 전문적 교육과 진리탐구의 학문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교양과 진리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을 특정분야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특성화하자는 요구도 대두되고 있다. 대학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4.2. 식량

- 2015 아주대 모의

[문제 1-1] [가]와 [나]를 순서에 따라 연계하여 한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5점).

[가]

대부분 환경에서 식량 부족은 굶주림 곧 기아(飢餓)로 나타난다. 그런데 인간은 영양 섭취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면, 기아로 죽기 전에 다른 이유로 죽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쉽게 회복될 수 있을 테지만, 기아 상태에 빠지면 저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기 쉽고, 건강한 적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기 십상이다. 특히 식량 부족은 특정한 비타민, 특정한 미네랄, 단백질 등의 결핍으로도 나타난다. 특정한 영양소 결핍에 따른 질병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당 영양소의 결핍만으로 사망하기 전에 사고나 폭력 혹은 감염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는다.

기아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이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매년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손쉽게 식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선진국에서도 1년 중 몇 주일간만 구할 수 있는 계절성 식품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식량의 규모는 1년 내내 거의 일정한 편이다. 반면에 소규모의 전통 사회에서는 하루하루를 예측하기 힘들고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식량은 전통 사회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거의 불변의 주제이다. 예컨대 볼리비아의 시리오노족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식량이며, 그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은 “내 배가 텅 비었다.” 와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다.

우리와는 달리 전통 사회들, 특히 척박한 환경에 자리 잡은 사회들은 시시때때로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 식량 부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식량 부족이 느닷없이 닥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고 필요할 때에 사용

하기 위해서 잉여 식량을 저장해두는 전통 사회는 많지 않다. 뜨겁고 습한 기후에 처한 전통 사회의 경우에는 식량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잉여 식량을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목하는 삶을 사는 전통 사회에서는 거처를 이리저리 옮기기 때문에 충분히 저장할 만큼 잉여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다. 게다가 잉여 식량은 침략자들에게 빼앗길 위험마저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좁은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기 때문에 늘 식량 부족에 위협으로 시달린다. 그리고 전통 사회에서는 식량을 멀리까지 나르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물론이고 도로, 철로와 같은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가까운 이웃 사회로부터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다.

전통 사회에서 식량 공급의 상황은, 최단 기간과 최소 공간으로 따지면, 사냥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하루하루가 다르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 동안 얼마나 채취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지만 동물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뛰어난 사냥꾼도 어떤 날에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나]

리처드 리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 사회가 서너 명의 사냥꾼들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살면서 사냥꾼들이 사냥한 짐승을 공유하는 것을 목격했다. 리처드 리는 그 이유가 한 사냥꾼의 들쭉날쭉한 성과를 상쇄하는 데 있음을 알아차렸다. 리처드 리는 쿵족 사회에서 식량을 공유하는 양상을 모든 대륙의 수렵채집 사회로 확대해 일반화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량을 가족끼리만 먹지 않는다. 식량은 함께 살아가는 무리, 심지어 30명 이상이 되는 무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항상 공유한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 일부만이 매일 숲으로 나가 채집하고 사냥하지만, 사냥한 고기와 채취한 식량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나눈다. 한마디로 사냥하고 채취하는 무리사회는 공유하는 사회다.”

리처드 리가 수렵채집 사회에서 찾아낸 공유와 공평의 원칙은 소규모 목축 사회와 농경 사회에도 적용된다. 수단인 누에르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에번스 프리처드는 누에르족이 고기, 우유, 물고기, 곡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맥주까지 공유한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각 가정마다 자체의 식량을 소유하고 제 각기 식사 준비를 하며 공동체원의 욕구와 관계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는 아니어도 남자들은 서로 상대의 집에서 식사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 식량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손님을 환대하고 고기와 물고기를 분배하는 관습이 있어서, 식량의 공유는 각자의 소유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4.3. 역사교육

- 2014 상명대 수시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두 관점에 대해 차이점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35점, 답안지 8줄±2줄] (400자)

내외: 300~500자)

제시문 (가) :

우리는 거의 매년 봄 일본발 역사교과서 홍역을 치러야 한다. 지금껏 몇 차례인가 되새겨 보니 세기가 바뀌던 무렵부터 거의 연례행사 격이다. 이미 여러 번 그 처방을 강구해 보았건만 증세는 악화일로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바이러스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상대는 역대 가장 우파로 지목되는 아베 신조 내각이다. 2013년 지금, 다시 시작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이 또다시 쟁점화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현안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을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개별적 현안들보다 그 배후에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이 더욱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깨달는 데에 있다.

최근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와 집권 자민당의 여러 의원들은 ‘소 위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은 없었다.’ 라는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고, 이러한 해석이 역사교과서 수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역시 핵무기가 사용된 전쟁의 피해자라며 과거의 전범행위를 공공연히 부인하는 것도 이젠 흔한 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군사력의 방어적 사용을 명시한 평화헌법을 수정하겠다고 군국주의적인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상식마저 실종된 채로 정치논리의 괴물만이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인식이 계속해서 판을 친다면 역사학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역사의 진실에서 가해자는 가면 뒤로 숨고, 그렇게 남겨진 선량한 피해자들만이 매년 깊은 상처를 입는다.

일본 사회 주류의 이러한 역사인식이 지속되는 한,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요원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독도에 대한 집요한 시비가 멈추는 날도 기대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북아 시대의 평화로운 동반자로 공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사회의 주류가 먼저 솔직한 자기성찰을 통해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일본 스스로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쁜 일본 두들기기’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나쁜 행위’ 가 인류사회의 ‘공공의 적’ 임을 자각하고 이를 알려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의 날을 어떻게 하면 더욱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제시문 (나) :

일본 식민주의의 팽창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겪은 경험은 매우 가슴 아프고 잊기 어려운 일이다. 그에 대한 진심어린 성찰을 통해 평화와 신뢰가 정착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노한 목소리를 높여 반성을 촉구하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설령 한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식민통치 문제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해 그 “잘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관철시킨다고 하여도, 과연 한국과 일본이 같은 동아시아

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왜냐하면, 한일 간 역사적 경험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역설적으로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다시 말해 한일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자국/자 민족 중심주의적인 역사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관 하에서는 자기 민족/국가의 장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만을 내세우면서 이웃 민족/국가에 대해서는 타자화하고 무시하는 등 적대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게 된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중국도, 이러한 역사관을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해 왔다. 근대 이전의 역사에 있어, 한국의 국사교과서 역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우월한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이 “왜곡”이라고 항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자국/자 민족만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과 여기에 기반한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이 지속되는 한, 한국과 일본사이의 진정한 화해 및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은 요원하다. 서로를 선한 피해자와 악한 가해자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만 바라본다면, 설령 일본이 몇몇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두 국가 사이의 적대적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두 국가 간의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악한 가해자 일본”과 “선한 피해자 한국”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혹시나 우리도,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행위를 정당화해 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맺어 왔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찰적 관점이라면 일본의 자국중심적인 시각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일본 내의 양심적 움직임과 신뢰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항구적인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일 양 국가 간의 진정한 동반자적인 관계가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4. 욕망

- 2015 경희대 모의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욕망’을 핵심어로 하여 요약하고, 그 욕망의 유사성을 논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가]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다. 하굣길에 읍내 아버지 사무실에 갔다가 사환으로 있던 동네 형을 만났다. 아버지는 안 계셨고 형은 그때 마침 라면을 끓여 도시락과 함께 먹으려는 찰나였다. 꼬불꼬불한 국수 모양이 신기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읍내에서 십 리 길 가까운 시골에 사는 내게는 도시적이다 못해 이국적인 느낌마저 불러일으켰다. (중략)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밥을 짭 놀러 채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분식집에 모였다. 그러면 주인은 미리 껌질을 벗겨 놓은 라면을, 역시 미리 스프를 풀어 끓여 놓은 냄비

속에 빠뜨렸다. 그러고는 시큼하고 커다란 단무지 세 쪽 아니면 네 쪽을 접시에 담아 냄비와 함께 가져다주었다.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를 살짝 풀어 라면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도서관에서의 한밤까지도 든든했다. 그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를 지경이었다. (중략)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면의 맛을 잃어버렸다. 라면의 종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재료 역시 좋아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동안 나는 초겨울 빈 들에 구하기도 힘든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나가 짬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 보기도 했다. 또 어렵사리 분유 강통을 구해 젓가락을 넣다가 합선 사고를 내기도 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를 찾아 시장을 헤맨 적도 있다. 여러 사람의 자문을 얻어 이것저것 실험도 해 보았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성냥불만 달아도 파르르 반응하도록 얇을수록 좋다. 스프는 미리 찬물에 풀고 그 물을 최대한 오래 끓인 뒤 면을 넣는데 뚜껑은 덮지 말고 면을 섞거나 뒤집지 않는다. 날씨는 추울수록 좋고 끓는 부분과 차가운 대기에 접촉하는 면이 공존해야 한다. 면을 넣은 뒤 최소한의 시간만 익히고 곧 먹어야 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한겨울에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와 같은 맛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전에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어 하는 거라고.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헛되이, 저 멀리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나]

1930년대에 미국 일리노이 주 시서로 시에 소재하고 있던 웨스턴 일렉트릭 사의 호손공장에서는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공장의 조명을 바꾸는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전제되는 이론은 조명이 밝으면 노동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 결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었다. 연구책임자였던 메이요와 그의 연구원들은 비용이 높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조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호손의 노동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한 그룹은 조명의 조도를 높였고 차츰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다른 그룹의 조명은 평상시 조도 그대로였으나 역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전제되는 이론에 반하는 결과에 의아함을 느낀 연구팀은 이번에는 한 그룹의 조명의 조도를 과감하게 줄였다. 이번에도 이 그룹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나중에는 이 그룹의 조명을 아주 칙칙할 정도로 낮추었다. 노동자들은 달빛 아래서 일하는 것처럼 압박을 느끼고 짜증을 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산성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때로는 증가하기까지 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노동자가 실제 최소한의 조명을 받으면서 아주 작은 방에 고립되었다. 이번에도 그들의 생산성은 감소하지 않고 지난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혼란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의아해 하며 연구를 뒤 돌아보았다. 연구원들은 경영자와 함께 연구기간 동안 관심을 기울여 두 노동자 그룹을 선발했었다.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경영자가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동료와 잘 지내고 싶다는 욕망, 이른바 인간의 결합 본능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해와 그럴싸한 경영원칙을 토대로 한 추론의 논리를 쉽게 능가한다.” 고 연구책임자 메이요는 논평했다.

05

논술의 기초 - 5. 제시문 비교

논술의기초 - 5.제시문비교

2015.01.09 08:18

5.1. 생존 (2015 가톨릭대 수시)

[문항 1]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200~250자 / 20점)

(가) 상호간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나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그것은 곧 폭력이나 계락을 써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 대한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밖에 없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할 이유가 없다. 토지의 경작이나 해상무역, 편리한 건물,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지표(地表)에 관한 지식, 시간의 계산도 없고, 예술이나 학문도 없으며, 사회도 없다.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

천성적으로 억압을 싫어하고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국가 체제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보존에 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써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 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을 한 사람 혹은 합의체에 부여하고,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든 혹은 백성에게 어떤 처벌을 가하든 간에,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위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다.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mortal god)' 이 출현하는 것이다.

(나) 다윈의 진화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착안한 것으로, 이 책에서는 인구의 증가보다 식량이 매우 적게 생산되어 그 격차로 인해 기근, 질병, 전쟁 등 대재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다윈은 이러한 대재앙을 자연 환경에 비유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생존한 개체가 자손을 남기게 된다는 자연선택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생물의 종은 다산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생존경쟁이 발생한다. 이때 그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를 갖

는 개체가 생존하여 자손을 남기고 그 변이를 전하는 확률이 높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종은 환경에 적응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생물의 종이 신에 의해 창조된 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5.2. 원전(元典) (2015 이화여대 모의)

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원전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 분석하시오. [분량제한 없음]

[가]

역사적으로 지식의 신뢰성이 늘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지는 않았다. 근세 초기에 나타났던 지적 흐름들 중 아주 중요한 하나를 꼽자면 진리라는 주장들에 맞서 다양한 종류의 회의주의가 등장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정확한 지식을 얻는 과제를 푸는데 매달렸는데, 예컨대 기하학적 접근 방법, 즉 기하학에서처럼 최소한의 공리에서 지적 체계를 연역해 내는 방법들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귀납적 접근 방식이 등장하면서 원전(原典)에 각주를 다는 사례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각주(footnote)’ 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특정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에게 원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관행이 퍼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행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전’ 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흐르는 물처럼 정보도 그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순수해진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실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일지와 마찬가지로, 원전의 출처를 밝혀 주는 각주는 독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저자의 지적 궤적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과 종교 개혁가들이 내걸었던 표어이기도 했으며, 16세기부터 몇몇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쓰면서 근거로 삼았던 수사본들을 신경을 써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각주를 다는 것이 일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였다. 예를 들어 17세기 초에 셀던은 □십일조의 역사□를 집필하면서 여백마다 출처에 관한 소개를 가득 채웠는데, 그는 책의 서문에서 “여기에 열거한 원전들은 그저 남들이 많이 인용하니까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택되었으며, 각주에서 밝힌 출처들에서 직접 인용한 것으로서 절대 2차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언급하고 있다.

[나]

성인(聖人)의 책에 주석(註釋)을 다는 것은 괜찮지만 그보다 등급이 낮은 책에 주석을 다는 것은 만족스럽지가 않다. 주석이라는 것은 원전의 신하이자 하인이다. 내가 비록 옛날의 주석가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어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 그들의 신하나 하인이 되고자 하겠는가? 당나라의 훌륭한 문인인 한유(韓愈)가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는 공자와 같은 성인이 계시지 않으니 내가 공자의 제자들과 똑같은 등급에 서려는 것은 마땅한 자세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장부가 뜻을 세우려면 진실로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옛사람들의 저서나 주장을 가져다가 그 차이를 따지는 것도 원전의 발아래에서 오고 감을

면치 못한다. 한나라의 양웅(揚雄)이 굴원(屈原)의 명작인 「이소(離騷)」를 반박하는 글을 지었지만 굴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당나라의 유종원(柳宗元)이 좌구명(左丘明)의 저서 「국어(國語)」를 따지며 글을 지었으나 좌구명에 미치지 못했으니, 유종원의 주장에 다시 반박하는 글을 지은 자는 결국 유종원의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대장부가 글을 짓고 책을 저술하려면 마땅히 최초의 원전인 육경(六經)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어찌 괴롭게 유종원이나 양웅 무리의 발아래서 머물러야 한다는 말인가?

5.3. 행복 (2015 세종대 모의)

1.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행복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500자, 30점)

(가) 목표가 명확하고 활동 결과가 바로 나타나며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면 사람은 정신을 체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몰입은 정신력을 모조리 요구하므로 몰입 상태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몰두한다. 잡념이나 불필요한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티끌만큼도 없다. 자의식은 사라지지만 자신감은 평소보다 커진다. 시간 감각에도 변화가 온다. 한 시간이 일 분처럼 흘러간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한 없이 쓸 때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일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삶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된다. 체력과 정신력이 조화롭게 집중될 때 삶은 마침내 제 스스로 힘을 얻는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느끼려면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눈앞의 일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이다. 암벽을 타는 산악인이 고난도의 동작을 하면서 짬을 내어 행복감에 젖는다면 추락할지도 모른다.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외과이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행복감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지난 일을 돌아볼만한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이 한 체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되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물론 몰입하지 않고도 행복을 맛볼 수는 있다.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의 편안함과 따사로운 햇살은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모두 소중한 감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복감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눈 녹듯 사라지기에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몰입에 뒤이어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 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나)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 라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서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청빈의 덕이다.

5.4. 세계화(2015 성균관대 모의)

[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세계화'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1>

새로운 것에 폭 빠진 사람들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및 운송 기술의 혁명적 변화 덕분에 말 그대로 우리는 '국경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변화가 최근에 일어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진보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가 없는 국경없는 세계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경을 넘어 흘러들어오는 자본과 노동, 상품에 대해 반드시 가해야 하는 규제마저 일부 철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최근의 기술 변화는 100년 전에 있었던 변화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100년 전의 세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에 비해 통신과 운송 부분에서의 기술은 훨씬 뒤떨어졌으나 오히려 세계화는 월등히 진전된 상태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정부들, 특히 힘센 나라 정부들이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기술혁명에 사로잡혀 시각이 왜곡될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자유 무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동안 우리가 채택하려고 노력해 왔던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관세 인하를 위한 상호주의적 협상을 벌이는 것이었다. 내게는 이것이 그릇된 방식으로 보인다. 첫째, 그렇게 하면 일의 진척이 매우 느려질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법이다. 둘째,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조장한다. 그것은 관세가 관세부가 국가에는 도움이 되고 다른 나라에는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가 관세를 인하하면 그것은 마치 좋은 무언가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세 인하라는 형태로 보답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 상황은 그와 전혀 다르다. 우리의 관세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면 우리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혜택을 보는데 다른 나라들의 관세 인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각자의 사적 이익은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상충하지 않는다. 영국이 19세기에 곡물법을 폐지하였을 때 그랬듯이, 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으로 나아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정치 및 경제적 힘의 엄청난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시문 3>

성공을 향한 중국인들의 노력의 결과 (물리적 거리와 재능의 총체적 관계가 변했듯이) '난소 복권 (ovarian lottery)'이 바뀌었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0년 전에는 미국 뉴욕 주에 있

는 인구 3만의 소도시 포킵시 같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뭄바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 근처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포킵시를 선택했을 것이다. 평범한 재능이지만 거기서는 윤택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평평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시작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거리보다 재능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빌 게이츠는 말했다. “지금이라면 포킵시에서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보다 중국에서 천재로 태어나는 걸 택하겠다.”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광장으로 바뀌고 30억 인구가 이 모든 새로운 협력의 수단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다섯 배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얻을 것” 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제시문 4〉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범위가 전지구적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접촉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만듦으로써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우려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서구 중심적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가운데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거나 획일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의 위기〉의 저자인 요스트 스미르스는 자유무역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예술이 처할 위기를 경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나 예술을 경제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그럴 경우 문화적 획일화가 발생하여 지역 문화를 소멸시키고 개인의 창의성 발휘 기회를 박탈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행복 추구권과 문화적 기본권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생산과 배급, 마케팅, 소비 방식 전반이 분산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저작권 독점 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제시문 5〉

당신이 소비할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직접 옷을 만들고, 곡식을 키우고, 집을 수리하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하면 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자급자족 시대에 농부들이 실제로 살았던 삶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대체로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별다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마이클 조던이 농사짓고, 바느질하는데 온통 시간을 다 바쳤다면 어땠을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선수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은 주(州) 혹은 개인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도 무모한 짓이다. 애덤 스미스도 1776년에 쓴 [국부론]에서 이 점을 언급하였다.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데 돈이 더 드는 물건이라면 집에서 만들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분별 있는 가장이라면 새겨들어야 할 격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외국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하여 우리에게 공급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의 산출물을 주고 그것을 사오는 편이 현명하다.

06

논술의 기초 - 6. 제시문 분석

논술의기초 - 6.제시문 분석

2015.01.13 12:35

6.1. 학생 독서 (2015 서울여대 모의)

[문항 2] -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독서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독서 활성화 방안을 기술하시오.

<자료 1> 연간(학생은 한 학기) 일반도서 독서량 변화 추이 (단위: 권)

연도	초등 학생	중학 생	고등 학생	성인					
2002년	20.5	7.6	6.6	10.0					
2004년	19.4	9.5	6.3	11.0					
2006년	24.0	10.2	7.7	11.9					
2007년	22.4	10.7	7.4	12.1					
2008년	25.8	10.1	6.1	11.9					
2009년	27.6	12.3	8.1	10.9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17.9	14.5	10.4	5.8	2.2	-

<자료 2> 초·중·고의 도서관 설치율과 1일 평균 이용자 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도서관 설치율 (%)	89.6	90.9	94.1	95.1
1일 평균 이용자 수 (명)	110	116	118.6	112

* 도서관 설치율: 학교 도서관 수/총 학교 수
* 1일 평균 이용자수: 총 방문자 수/개관일 수

<자료 3> 2009년 학교급별 학생들의 여가 활동 순위

(단위:%)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	텔레비전 보기	17.0	텔레비전 보기	15.5	텔레비전 보기	15.0
2	컴퓨터 게임(집)	13.4	컴퓨터 게임(집)	12.7	인터넷 하기	12.0
3	책 읽기	12.1	인터넷 하기	11.0	음악 감상	10.7
4	친구들과 어울림	7.8	음악 감상	9.9	컴퓨터 게임(집)	9.1
5	만화책 읽기	7.0	휴대 전화 이용하기	6.6	친구들과 어울림	6.9
6	인터넷 하기	6.5	책 읽기	5.7	수면/휴식	6.0
7	음악 감상	5.4	케이بل/위성방송 보기	5.2	케이بل/위성방송 보기	5.8
8	수면/휴식	5.3	친구들과 어울림	5.1	휴대 전화 이용하기	5.6
9	휴대 전화 이용하기	4.6	수면/휴식	5.1	책 읽기	4.7
10	그림 그리기	3.4	만화책 읽기	3.7	영화 관람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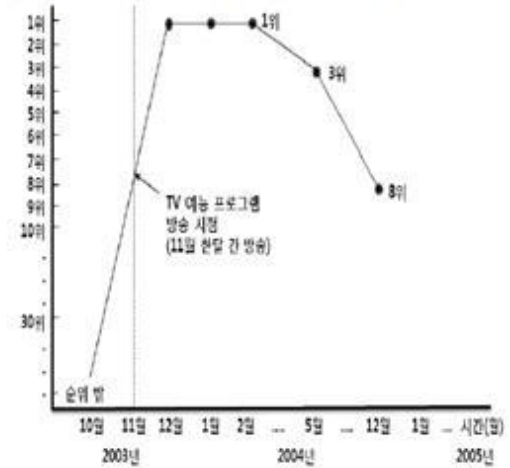
〈자료 4〉 2009년 도서 구입 시 고려요인 (단위:%)

구분	도서 구입 시 고려요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외적요인	베스트셀러 순위	7.5	11.7	13.2
	디자인 등 책의 외형	6.4	8.7	9.4
내적요인	책의 제목이나 목차	8.2	10.0	8.4
	책의 내용	44.9	40.9	43.4

* 외적 요인: 책 내용 이외의 외부 정보에 기인한 도서 선택 요인

* 내적 요인: 책 자체의 내용에 기인한 도서 선택 요인

〈자료 5〉 베스트셀러 순위 변동 상황



〈자료 6〉 아침 독서시간 여부 및 한 학기 독서량 (2009년)

구분	학교급별			한 학기 독서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없음	1~5권	6~10권	11~15권	16~20권	21권 이상
아침 독서시간이 있다 (%)	80.1	70.4	36.4	41.6	57.5	58.9	65.1	72.4	72.7
아침 독서시간이 없다 (%)	19.9	29.6	63.6	58.4	42.5	41.1	34.9	27.6	27.3
사례 수 (명)	1,000	1,000	1,000	190	1,083	509	232	196	790

6.2. 속도 (2015 한국외대 모의)

1. 〈자료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자료1〉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1863년 유럽에 처음 등장한 기차를 타본 뒤 극심한 전율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당시 기차는 시속 30~40km에 불과했지만 마차보다 3배나 빨랐다. 주변 풍경을 음미할 여유 따위의 여행 과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목적지만 남는 것을 경험한 하이네는 “철도가 공간을 살해했다.” 는 명언을 남겼다. 철도 여행으로 상징되는 속도가 인간의 일상과 의식, 문화, 심리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견한 것이다. 밀란 쿤테라는 그의 소설 『느림』에서 “자본주의와 느림은 상극이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만연은 사람에게 속도를 강요했다고 갈파했다. 19세기 이후 기계에 의한 동력이 개발되면서 사람은 ‘속도’ 라는 효율에 갇혀 ‘느림’ 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각박해진 세상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에도 속도감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걸음 속도가 10여 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영국 허트포드셔 대학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팀은 최근 세계 32개 도시 사람들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결과 1994년 조사 때보다 평균 10%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60피트(약 18m)를 걷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3.76초에서 12.49초로 1초 이상 빨라진 것이다. 한편 걸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극심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용’ 국가였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보행자들은 60피트를 10.55초에 걸어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1994년 세계인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캘리포니아대학 로버트 레빈 교수는 “사람은 빨리 움직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작아지며 심장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압축적인 근대화를 달성한 한국의 경우 ‘속도’에 대한 집착은 눈에 띄는 현상이다. 급속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던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성장만능주의와 결합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최대의 선박생산국, 세계 최대의 컴퓨터 D램 생산판매국 등 좋은 성적도 거두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 행복지수 순위 102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식 속도전’의 문제점을 깨닫고 삶의 인간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속도가 아닌 느낌의 미학에 관해 다시 생각할 때다.

- <○○일보> 기사 일부 수정

<자료 2>

One thing that distinguishes the new economy from the old one is ‘speed.’ To succeed on the digital playing field, where speed plays a critical role, global companies must move closer to fulfilling customers ‘demands in real time. As such, the ability to analyze information rapidly to establish timely corporate policies is essential. Traditional hierarchical decision-making is too slow to cope with the realities of the new digital market. Most existing knowledge management and reporting systems are not geared to support high-speed business activities. To compete in a market filled with greater volatility* and uncertainty, all companies need to be nimble** and fast. Global firms, in particular, will need to speed up their business and adjust processes, strategies and business models as events unfold. In a world where markets are in perpetual flux, product development and sourcing strategies must realign more quickly. The key to success in new global economy lies in speed which enables a business to effectively deal with rapidly changing realities.

* 불안정성, 변동성

** 재빠른, 민첩한,

- Oxford Economics, The New Digital Economy

6.3. 공동체 (2015 건국대 수시)

[문제 1] : [가]와 [나]와 관련하여 [다]에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시오.(401~500자) [40점]

[가]

나와 민족, 국가는 운명을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따라서 자기 나라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난다. 자기 자신의 헌신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가져오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자기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 순국선열, 호국 영령 등으로 칭송하고, 국가는 그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도 민주 유공자로 선정하여, 그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를 사랑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애국자로 불리는 특별한 분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애국, 애족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나]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 당당하게
불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 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비켜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다]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위해 200명을 표본집단
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단,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지역, 연령, 학
력 등의 변인들은 표본 수집 시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체주의	개인주의
적극적 행동 성향	74명	38명
소극적 행동 성향	26명	62명

* 위의 표에 제시된 조사결과는 가상의 결과임

6.4. 배분(2014 경기대 모의)

[문항 2] 제시문 [가]의 배분의 문제에 대해 [나], [다], [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서술하고, 그 각각의 장·단점을 논술하시오. (750 ± 50자)

[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인간 생활의 풍요와 만족은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고루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 행복한 인간의 생활을 생각할 때, 물질적 측면인 경제 문제만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얻어 내고,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의 문제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해결해 준다. 반면에, 생산하여 공급된 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소비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사회 윤리와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 공정한 배분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으로는 “무엇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나]
행복한 도시, 축복받은 시민의 도시인 오멜라스에는 왕도 노예도, 광고도 주식 거래도, 원자폭탄도 없는 곳이다. 독자들이 이곳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곳으로 상상하지 않도록, 작가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인다. “오멜라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공공건물 지하실에, 어쩌면 대궐 같은 저택 천장에 방이 하나 있다. 방문은 잠겼고, 창문은 없다.” 이 방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다. 지능도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안 좋은 아이는 방치된 채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간다.

사람들은, 오멜라스의 모든 사람은, 아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 (· · · · ·) 그들은 모두 아이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그들의 행복이, 도시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따뜻한 우정이, 자식들의 건강이, (· · · · ·) 심지어는 풍요로운 수확과 온화한 날씨까지도 전적으로 그 아이의 끔찍한 불행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 · · · ·) 아이가 그 비참한 곳에서 나와 햇빛을 본다면,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위로한다면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그날 그 시간부터 오멜라스의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기쁨은 시들고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다.

— 정의란 무엇인가 —

[다]
차등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 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태어나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갚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애초에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러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차이를 이용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해,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 정의론 —

[라]

한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 지역에는 아직도 해를 시계 삼아 하루를 보내고 나무를 마찰하여 불씨를 얻는 부족, 조에(Zoe)족이 살고 있다.

(중략)

조에족에게 인기 있는 남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 즉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조에족 최고의 사냥꾼 모닌은 아내가 셋이다. 조에족이 원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사냥 능력 때문이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 무똥과 원숭이, 그리고 몸무게가 최대 30kg까지 나가는 아르마딜로까지 밀림의 어떤 짐승도 그들의 사냥감이 된다. 그러나 조에족의 진짜 중요한 생존 전략은 바로 사냥 후 음식물을 나누는 풍습에 있다. 조에족은 사냥을 해 온 사람이 고기를 나눠 주는데, 많은 적든 노인에게까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

— 고등학교 경제 —

07

논술의기초-7.주장및 관점

논술의기초-7.주장및 관점

2015.01.15 09:58

7.1. 형평성(2015 동국대 모의)

[문제 2] [다]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라]의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별소비세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300~360자, 25점)

[다]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태를 형평성 또는 공평성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가 희소한 자원으로 얻은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같은 대가를 받으면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더 나아가 각자 노력한 정도나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대가를 받아야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형평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사회의 부가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사회의 갈등이 깊어져서,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일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능력이나 기여의 정도에 비례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보유 지식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 등을 통해 경제의 형평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소득의 재분배라고 한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라]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T' 인데 사업자(판매자 □ 생산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즉, 조세 부담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정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자가 제품 판매가격의 10%를 미리 판매가에 포함시켜서 팝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지요.

사치성 상품이나 고급 서비스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008년 이전까지는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불렸어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을 팔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람 등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사회나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이전까지는 골프용품이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됐는데 이들 스포츠가 대중화하면서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요.

- 매일경제, 2013년 9월 25일자

7.2. 가부장적 사회 (2015 서울시립대 모의)

<문항 2> 어떤 사람이 [마]에 제시된 도표를 보고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와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당신은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두 입장 가운데 하나를 정한 뒤 도표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마]
 <도표 1>과 <도표 2>는 우리나라 부부가구의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단, 가구주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남편이 장남인 부부가구는 제외하였다.

<도표 1> 부부가구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유형별 분포 (%)

연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2001	37	22	5	36
2002	38	23	7	32
2003	37	19	8	36
2004	44	22	7	27
2005	44	18	7	31
합계	40	21	7	32

- * 유형 1: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 모두에게 소득이전을 행한 부부가구
- 유형 2: 남편 부모에게만 소득이전을 행한 부부가구
- 유형 3: 아내 부모에게만 소득이전을 행한 부부가구
- 유형 4: 남편 부모와 아내 부모 누구에게도 소득이전을 행하지 않은 부부가구

<도표 2> 연간 소득이전과 가구소득의 평균 금액

(단위: 만원)

변수	평균 금액
남편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74
아내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40
부부가구의 가구소득	3,136
남편 부모의 가구소득	1,321
아내 부모의 가구소득	1,621

* 소득이전 금액의 평균은 소득이전 금액이 0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7.3. 진화 (2015 한양대 모의)

[문제 1번] <가>에 소개된 진화 이론으로 <나>의 사례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술하고,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사례를 보다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500자, 50점)

<가>
친족선택(kin selection) 이론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개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해서라도 자신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친척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행동을 하도록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해밀튼 규칙은 친족선택이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친족을 위한 행동은 그 행동을 하는 개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C)보다 그 행동으로부터 친족이 얻게 되는 이득(B)과 근친도(r)를 곱한 값(rB)이 더 커야만 진화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족선택 이론은 동물 세계에서 종종 관찰되는 이타적 행동,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동료들에게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는 경고음을 내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동료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나>
조류와 포유류 중에는 다 자란 새끼가 자신이 태어난 보금자리에 남아 부모가 어린 동생을 키우는 일을 돕는 종이 있다. 이는 둥지를 떠나 스스로 번식한 시기를 늦추는 대신 부모의 번식 성공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부모의 번식 성공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다 자란 새끼가 자신이 태어난 보금자리에 머무는 현상이 종종 보고되었다. 이는 주로 생태학적 조건이 열악해서 둥지를 떠나 새로 보금자리를 지을 자리가 희소하거나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세력권이 좁은 상황 등에서 관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조류 종은 ‘떠돌이 전략’, 즉 개체가 이 둥지 저 둥지로 돌아다니며 도움을 여러 둥지에 분산시키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관찰되었다. 이 경우 개체가 방문하는 둥지 개수가 많아질수록 개체와 각 둥지에 살고 있는 새들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의 평균값과 개체가 각 둥지에 제공하는 도움의 평균값은 줄어든다. 결국 ‘떠돌이 전략’을 사용하는 개체는 자신과 유전적 연관성이 높지 않은 개체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 ‘떠돌이 전략’을 활용하며 새 둥지를 만들지 않던 젊은 개체는 부모가 죽은 뒤 부모의 보금자리나 세력권을 물려받게 된다.

<다>
보일러가 나오는 훈훈한 집도 없고 변변한 방한복조차 없는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까? 특히 극지방에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평균 2160m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23℃이며 최대 영하 75℃까지 내려간다. 북극 역시 최대 영하 53℃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극지방에는 먹이사슬에서 분해자인 세균부터 상위 계층에 있는 포식동물에 이르기까지 균형 잡힌 생태계가 존재한다. 피가 응고될 만큼 혹독한 환경에서 이곳 생물들이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극지방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펭귄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한다. 3겹으로 이루어진 방수 깃털과 ‘원더 넷(wonder net)’ 라는 특수혈관계를 가진 발바닥이 펭귄의 몸에 구비된 방한 대책이다. 여기에 더해 펭귄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협동에 의존한다. 펭귄들은 수천 마리가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 추울 때는 한곳에

백백이 모여 칼바람을 견뎌낸다. 특히 약하고 어린 펭귄들은 무리의 중앙에 두어 함께 보호하고, 성체 펭귄들은 추위에 가장 정면으로 노출된 바깥 자리와 추위로부터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쪽 자리를 서로 번갈아 서는 방식으로 모든 개체가 체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08

논술의 기초 - 8. 의견 제시

논술의기초 - 8의견 제시

2015.01.19 08:09

8. 의견 제시

8.1. 선거(2015 덕성여대 수시)

(문항1) 글 [나]와 [다]의 내용을 토대로 글 [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투표자 국립박물관 할인입장권 지급 제도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이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50%)

(문항2) 글 (라)의 입장을 고려할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정책이나 운동 두 개 이상 제시하시오. (250자 내외, 50%)

(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2,000원 상당의 국립박물관 할인입장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지난 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비교하여 14.5% 하락하였고, 역대 최저인 46.1%를 기록하였다.

(나) 로또 복권의 당첨자가 세 차례나 나오지 않아 1등 누적 상금액이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로또 복권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평소에 로또 복권을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서로 앞 다투어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로또 복권 사업을 운영하는 주최측에서는 이번 주에 로또 복권 구입자가 3,000만 명의 성인 남녀 중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술환자에 대한 혈액 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혈을 하는 사람들에게 5,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오히려 헌혈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져서 보건복지부는 더욱 곤란을 겪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초래하는 비용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용보다 수익이 큰 입장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선거에 응용하면 합리적 유권자는 투표참여에 따른

수익이 비용보다 클 때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합리적 유권자의 입장에서 투표참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익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 천만 명이 투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합리적 유권자 개인이 투표를 하던 안 하던 선거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투표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과 같은 비용은 온전히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합리적 유권자는 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으로서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8.2. 인터넷 언어(2015 서울과학기술대 수시)

[1.2] 우리는 제시문 (가)에서처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어떤 대상을 소개하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다. 인터넷에 ‘한국 판소리 문학의 언어’ 라는 제목으로 소개 글을 올리려고 한다. 제시문 (나)와 (다)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평서문 500자 내외로 작성하시오.(500±50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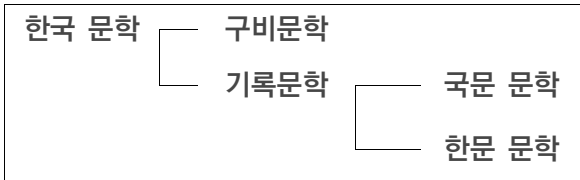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의 표현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는 글 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이 사용된다. 문자 언어 자료인 글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며, 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한편, 사진은 순간적인 상황 등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제 장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데 용이하다. 또한, 동영상은 시간적인 흐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나 절차를 보여주기에 효과적이다. 사진, 동영상과 같은 영상 언어와 함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등이 동시에 사용되는 복합 언어 자료는 상황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인터넷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자료를 올릴 때에는 인터넷의 표현상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타를 치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블로그에 게시하기로 하였을 때, 어떻게 자료를 구성하면 좋을까? 우선 소개하는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양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기타를 치는 것이 취미가 된 계기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글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동영상에 자막을 삽입하여 그때의 심정이나 생각을 간단히 글로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기타를 배우는 과정을 찍은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다.

(나)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한국인이 역사상 사용해 온 언어’ 로 창작한 문학을 가리킨다. 한국 문학에는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와 사상, 풍속과 문화 등이 담겨 있다.

한국 문학은 다음과 같이 ‘말’ 을 통한 구비문학과 ‘문자’ 를 통한 기록 문학으로 영역을 나누어볼 수 있다.



구비문학은 문자가 없던 시대에 말로 전승된 문학으로서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을 포함한다. 특히, 문자로 정서와 사상을 기록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말’을 통한 전달이 주된 방법이었던 때문에 구비문학은 민중들 사이에서 한국 문학의 주요한 영역으로 인정받아 왔다.

기록문학은 사용하는 문자에 따라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한문 문학은 한글 창제 이전에 중국의 한문을 빌려 한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노래한 것으로서 한시, 한문 소설 등을 포함한다. 한글이 없었던 시대에 한문은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을 수 있는 문자였으므로, 한문 문학 또한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문 문학은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표기된 문학으로서 시조, 가사, 국문 소설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한국 문학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 등을 통해 한국인의 다양한 삶과 정서를 반영해 왔다.

(다)

흥보 좋아라고 박씨를 딱 주어 들더니마는, “여보소, 마누라, 아, 제비가 박씨를 물어 왔네요.” 흥보 마누라가 보더니, “여보, 영감, 그것 박씨가 아니고 연실(蓮實)1)인갑소, 연실.”, “어소, 이 사람아, 연실이라는 말이 당치 않네. 강남 미인들이 초야반병2) 날 밝을 적에 죄다 따 버렸는데, 제까짓 놈이 어찌 연실을 물어 와? 뉘 박 심은 데서 놀다가 물고 온 놈이제. 옛날 수(隨)란이가 배암 한 마리를 살려, 그 은혜 갚느라고 구실을 물어 왔다더니마는3), 그 물고 오는 게 고마운게 우리 이놈 심세.” 동편 처마 담장 밑에 거름 놓고, 신짚 놓고, 박을 따둑따둑 잘 묻었었다. 수일이 되더니 박순이 올라 달아 오는디 북채만, 또 수일이 되더니 흥두깨만, 지동만, 박순이 이렇게 크더니마는, 박 잎사귀 샷갓만씩 하야 가지고 흥보 집을 짝 엮어 놓으매, 구년지수(九年之水)4) 장마 져야 흥보 집 썰 배 만무허고, 지동(地動)5)해야 흥보 집 쓰러질 수 없겠다. 흥보가 그때부터 박 덕을 보던가 보더라. 그때는 어느 땐고? 팔월 대명일 추석이로구나. 다른 집에서는 떡을 헌다, 밥을 헌다, 자식들을 곱게 곱게 입혀서 선산 성묘를 보내고 야단이 났는디, 흥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이 모다 졸라싸니까 흥보 마누라가 앓아 울음을 우는 게 가난 타령이 되었던가 보더라.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야. 잘살고 못살기는 묘 쓰기의 매였는가? 북두칠성님이 집자리의 떨어질 적에 명과 수복을 점지하는거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호가사(好家畝)6)로 잘사는디, 이년의 신세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벌었어도 삼순구식(三旬九食)7)을 할 수가 없고, 가장은 부황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餓死之境)8)이 되니, 이것이 모두 다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이렇듯이 울음을 우니 자식들도 모두 따라서 우는 구나.

- 판소리 「흥보가(興甫歌)」의 부분

8.3. 사회적 관계(2014 한국항공대)

[문제 2] “인간의 사회적 관계” 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비교하고, 이 제시문을 참고하여 “인간 본연의 가치와 책임”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전반부나 후반부 어느 쪽도 자유사회의 자유인이라는 이상에 걸맞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는 말은 국가가 보호자이고 시민이 피보호자임을 은연중에 전제하는 가부장적 표현으로서, 이는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자유인의 신념과 배치된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은 유기체적 관점이며, 정부를 주인 또는 신(神)으로 보고 시민을 종복이나 숭배자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인은 공통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전통에 애착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인은 정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뿐,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주는 시혜자라고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봉사해야 할 주인이나 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헌신하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빼고는 어떤 국가적 목표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적 목적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나) 레이건의 주장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커다란 공조를 이끌어낸 것은 공동체중심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에 대해 레이건이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점 가운데 가장 주요한 부분은 공동체의 가치, 즉 가족과 이웃, 종교, 애국심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지역공동체의 오래된 원칙들을 국가적 수준으로 확장” 시켜야 하며 미국인들이 서로를 국가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가정을 국가로, 가족을 국민에 비유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위대한 사회’ 를 주장한 린든 존슨은 “미국은 한 가족이며, 우리 국민들은 애정과 신뢰라는 공통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말했다. 카터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월터 몬데일 또한 국가를 가족에 비유한 바 있다. 몬데일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가족, 사랑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 고 주장했다. 뉴딜에서부터 위대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권리와 자격에 대한 개인주의적 가치체계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힘을 제공해주었지만 1970년대가 되자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잃고 말았다. 공동체적 감각을 상실한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는 불만의 기운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시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면서도 권한은 박탈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과 이웃에서부터 도시와 마을, 종교와 민족, 문화적 전통으로 구분되는 여러 다양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쇠퇴는 시대적인 불안과 우려를 가져왔다. 민주주의는 공공의식 함양을 다양한 공동체에 의존해왔다. 자치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는 공동적 삶에 대한 참여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다.

09

논술의기초-9.비판

논술의기초 - 9. 비판

2015.02.05 09:42

9. 비 판

9.1. 자유지상주의 (2015 부산대 모의)

2-2. 글 (가)와 (나)의 내용을 토대로 글 (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자유 지상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150±20자) [20점]

(가)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줌으로써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각자의 정당한 몫을 정하는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비례하여, 또 다른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업적과 필요 가운데 무엇을 분배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복지국가의 인식적 기초는 개인의 재산, 권력, 지위 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민주주의 유형은 탈상품화 수준이 매우 높으며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한다. 보수적 조합주의 유형은 복지 서비스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 되어 있으나,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유형은 탈상품화 정도는 낮은 수준이고 복지 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판매된다.

* 탈상품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복지를 통해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다) 노직(Nozick)으로 대표되는 ‘자유 지상주의’ 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며 그러기 위해 최소국가를 중시한다. 따라서 재화의 올바른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가는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9.2. 영웅 만들기 (2015 중앙대 모의)

[문제 3] 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 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라)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 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 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 이자 ‘민중의 딸’ 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 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 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 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 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 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 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 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아) 도편 추방제란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을 민회에서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내게 한 다음, 6,000표 이상 받은 자를 10년 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편 추방제는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도편 추방제는 일종의 국민 소환 제도로서 일반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들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중우 정치를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한 예로, 아테네를 제일의 해운국으로 만들고 직접 함대를 지휘하여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하기도 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제에 의해 추방된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9.3. 게임 중독 (2014 연세대(원주) 수시)

(문제 2) <제시문 1>의 시각에서 <제시문 2>의 문제 상황에 대해 논술하고 이러한 시각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900자)

<제시문 1>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금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술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내 삶을 더 선호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거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의 본성에 맞고, 삶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힘을 주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할 경우 궁극적으로 내 미래 상황이 매우 나빠진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해보다 득이 많다. 내 행위가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 자기 통제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술을 끊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제시문 2>

〈2-1〉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집 밖에 나오지 않던 20대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동의 한 빌라 방에서 A(21)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만 해 오다 2개월 전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숨이 가빠지는 증세까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2-2〉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도박,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당시에는 큰 반향이 없었지만 △△당 ◇◇◇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10

논술의기초-10.종합

논술의기초 - 10.종합

2015.02.09 08:51

10. 종합

10.1. 경쟁 (2015 송실대 모의)

[문제 2] 제시문 [가]에서 선생님과 동구 간의 입장 차이를 제시문 [나], [다], [라]를 활용하여 논하시오. (800±80자, 40점)

[가]

선생님: 제출한 과제를 검토해서 평가한 뒤 조별로 점수를 줄 거야. 그 전에……(백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조별 과제 수행 과정에서 불성실했거나 가장 기여도가 낮았다고 생각되는 조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도록. 조별 꼴찌에게는 최하점수를 줄 테니까……

학생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한 학생이 손을 든다.

학생 (일어서서) 선생님! 조별과제는 다 같이 힘을 합쳐 하는 건데……누군가 한 명을 제외시킨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불공평? 이게 더 공평한 것 아닌가?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실제로 누군가 대충 게으름을 부렸고, 또 누군가는 실력이 안 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그런데 같은 점수를 준다면 열심히 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 (질문한 학생을 바라본다. 그 학생은 슬며시 앉는다. 아이들의 어두운 표정.) 조직에 기여도가 낮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퇴출되거나 낙오되는 게 이 경쟁사회의 규칙이야. 능력도 실력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이익을 얻거나, 그 자리를 보존하려는 사람들……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직이 도태되거나 뒤쳐진다면, 열심히 한 다른 사람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가 각 조 네 명 중에서 꼴찌를 정하도록 해. 자신까지 피해를 입지 않고 싶다면 말이야. 자, 지금부터 이름을 적는다! 만약 백지를 내는 경우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조 전체에게 최하점수를 줄 테니 그렇게 알도록!

모든 학생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적는다.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쓴 동구는 자신의 짝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쓴 것을 본다. 동구는 짝의 종이를 빼앗아서 짝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대신 적어 제출한다. 확인 결과 동구가 속한 조를 제외한 모든 조에서 한 명이 세 표식을 받았음이 밝혀진다. 지목된 학생들은 절망하며 다른 조원을 원망하는 표정을 짓는다. 동구가 속한 조에서는 동구가 두 표를 받았지만 동구는 개의치 않고 웃음을 짓는다.

[나] 스웨덴에서는 학교 당국이 학교에 입학한 아이에게 세 가지를 묻는다. (1) 왜 학교에 다니려고 하는가? (2) 학교에 다니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3) 너는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가?

그리고 나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들 줄 아는가? 당신은 채소를 키우고, 옷을 만들고, 우물을 파고, 당신의 노래를 부르고, 당신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을 둘러싼 일상의 세계로부터 온전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

[다] 하이에크는 경쟁을 ‘발견의 과정’으로 본다. 기업들은 자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그 제품의 최저생산비용 등을 예측할 수 없다. 기업들은 수요와 비용에 관한 지식을 가격인하, 제품차별화, 서비스 강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발견한다. 만약 기업들이 수요와 비용에 관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현실의 경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결과를 경쟁 없이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은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지식을 알 수 없으므로 경쟁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에 관한 지식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희소한 자원으로 우리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생산자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만약 경쟁력이 없는 생산자들을 그 분야에서 도태시키지 않으면 소비자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 자유시장은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자유경쟁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라] 예전의 연구 주제에는 집단 내에서는 타인과 협력하지만, 집단 간에는 서로 경쟁하는 협력조건을 설정한 것도 있다. 혹자는 이러한 협력/경쟁 구조에 대해 협력이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집단 간의 경쟁 때문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변수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지금은 성과와 경쟁이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에미 페피톤은 “집단 간의 경쟁이 있든 없든 협력은 성과에 도움이 된다.” 라고 말했다. 이는 “집단 내 협력과 집단 간 경쟁이라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집단 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최근 도이치라는 연구자는 임무의 완수에 따른 보상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방식에는 승자 독식(대부분의 콘테스트에서 그렇듯이), 성과에 비례하는 배분, 그리고 균등 배분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쟁이 성과를 높인다고 생각하므로 앞의 두 가지 분배 방식이 사람들을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탐나는 보상을 승자에게만 주면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컬럼비아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여섯 가지의 실험을 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어로 된 시를 해석하는 것과 향아리 속에 들어있는 젤리의 개수를 맞추는 것과 같은 과제가 포함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상호의존도가 낮은 과제)에서는 보상의 분배 방식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한 모두가 균등한 보상을 받았을 때보다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가 더 생산적이라는 증거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일의 성패가 협동에 달려 있는 경우(상호의존도가 높은 과제)에는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도이치는 균등 배분 방식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고, 승자 독식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라고 결론 내렸다.

10.2. 의사결정(2015 숙명여대 모의)

1.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1,000±100자)

<가>

평생 동안 ‘인간은 선하다’ 라는 이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이론이 옳다는 증거를 충분히 발견할 것이다. 반대로 ‘인간은 악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 이론이 옳다는 증거를 충분히 발견할 것이다. 박애주의자이든 인간 혐오주의자이든 ‘확인되지 않은 증거’ 는 걸러내고, 대신 자기들의 세계관을 입증해주는 수많은 증거들만을 간직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신문이 ‘구글은 창조적인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공유함으로써 성공했다’ 는 내용의 기사를 쓴다면, 이 기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기업문화를 갖고 성공한 두 세 개의 다른 회사들(일명 ‘확인된 증거’)을 찾아내려고 하는 반면, 그 반대의 사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즉 창의적인 문화를 장려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회사들이나 승승장구하지만 창의적인 문화를 장려하지 않는 회사들(일명 ‘확인되지 않은 증거’)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들어맞는 회사는 많이 있다. 단지 그들은 이런 회사들을 일부러 지나쳐 버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신문기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그런 보호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인터넷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유대감을 갖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을 확고하게 입증해주는 블로그를 방문하고 자신의 생각 또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추어 전달한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게시판에 올릴 수 없게 차단한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같은 생각을 가진 단체 안에서만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확증편향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나>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어빙 재니스는 1972년에 출간한 <집단사고의 희생자들>에서 어떻게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집단이 잘못된 결

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집단사고’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재니스는 ‘집단사고’ 를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성원들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사고의 경향” 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하자면, ‘집단사고’ 란 낙관론에 집단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집단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 호감과 단결심이 크면 클수록, 독립적이며 비판적인 사고가 집단사고에 의해 대체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집단사고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외부로 향해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취하게 만든다.”

미국에서 나타난 ‘집단사고’ 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케네디 행정부의 피그스만 침공사건,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정책,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모든 사건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왕따’ 를 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혹은 보상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의심을 억누를 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집단사고’ 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상례적이며 사소한 결정에 대해서 ‘집단사고’ 는 시간 절약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문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조차 그룹 내의 화합적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레진저는 “우리는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가장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물리곤 한다.” 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서로위키도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사 처음에는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늬만’ 합의를 이루었다 해도 집단이 응집력을 발휘하게 되면, ‘무늬’ 는 실재가 된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품고 있을 수 있는 의심이나 회의는 모두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 구성원들이 이미 공동된 사고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통념에 도전하는 정보는 배제되거나 오류로 치부됨으로써 사람들은 토론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는 신념을 합리화하고 공고히 하게 된다. 집단사고가 행해지는 곳에서 토의는 생각을 여는 효과를 낳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다>

子張學于綠子曰

“多聞闕疑慎言其餘，則寡尤。

多聞闕殆慎行其餘，則寡悔。

言寡尤行寡悔，祿在其中矣。”

자장이 출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녹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 논어 『爲政편』 중에서

孟子曰 “愛人不親反其仁治人不治反其智禮人不答，反其敬，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其身正而天下歸之詩云。”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친근해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자함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지혜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차렸는데도 답례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경의를 반성하라. 행위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모두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 자기 자신이 옳바르면 천하가 이에 돌아온다.

* 맹자 『反求諸己章第四』 중에서

10.3. 세계화 (2015 서강대 모의)

[문제 2] [가]~[마]의 논거를 활용하여 [바]와 [사]에 나타난 19세기 말 세계화 추이의 공통된 특징을 논 하라. (800~900자)

[가] 국제 거래의 확대와 함께 세계 시장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교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의 규범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세계화란 “재화, 용역,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시장이 더욱 밀접하게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나]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가? 무역 자유화가 모두의 부를 증대시켜 준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견해도 있다. 가령, 선진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후진국에 진출하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후진국의 영세 상인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반대로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선진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질 수 있고 이민을 배출한 나라의 임금은 상승한다.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다] 시장 통합의 역사는 약 1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국가 간 시장 통합은 대서양 연안국끼리, 그리고 유럽국들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16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역 상품은 사치품에 국한되었고, 19세기 이전까지 상품 시장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을 세계화의 제1차 물결, 20세기 후반을 세계화의 제2차 물결이라고 부른다. 제2차 물결에서는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에 부가하여 정보 시장의 통합이 포함된다. 국가 간 시장 통합뿐 아니라 국가 내의 시장 통합까지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 세계화에 따른 상품 시장 통합 정도는 GDP 대비 무역(수출과 수입의 합)량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 상품 시장 통합은 운송비의 빠른 하락에 기인한다. 증기선의 발달이나 수에즈 운하의 개통, 철도 건설 붐, 냉장기술의 발전 등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운송비를 절감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세계화를 가능케 할 가시적인 기술적 근간이라면 정치와 제도적 근간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안전, 계약의 이행,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각종 법적, 관습적 장치의 광범위한 집합”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세계무역이 이루어질 안전한 환경이 19세기 말에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 양동휴,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라] 19세기 후반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대량 이민이 발생한 시대였다. 1820년 이후 100년간 약 6천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 중 60%는 미국에 정착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구이민’의 출발지는 아일랜드, 독일, 북유럽 순이었고,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출신의 ‘신이민’이 뒤따랐다. 대량 이민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 요인은 이민의 출발-도착지 간의 경제적 격차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임금격차로 표출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저렴한 토지, 사회적 평등성, 종교적 자유 등 ‘광의의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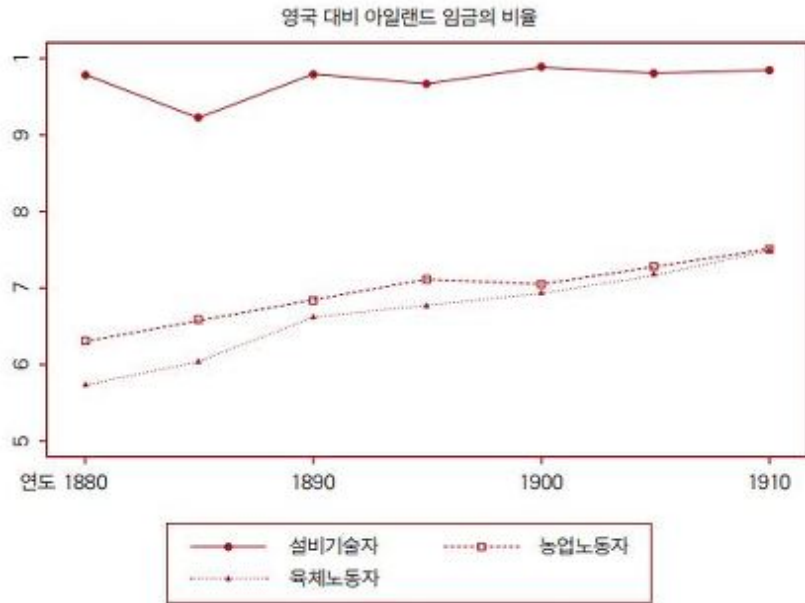
- 이철희, 『세계화와 국제 노동 이동: 대량 이민 시대의 미국 이민』

[마] 제1차 세계화 시기에 이민과 노동의 이동이 활발하였던 이유는 다양하였지만, 앞선 시기일수록 흡인요인보다 배출요인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중심으로 인구 변천이 전개되면서 인구 과잉 현상이 발생하였고 공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조적 실업*에 처한 비숙련 노동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

* 구조적 실업: 기술 변화나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유형의 비자발적 실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업 혁명 시기에 역직기(동력을 이용한 방직기계)가 등장하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전통적 직포공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송병건, 『경제사: 세계화와 세계 경제의 역사』

[바] 직종별로 살펴본 영국 대비 아일랜드 노동자 임금 비율의 추이, 1880~1910년



- 티모시 해튼, 제프 윌리엄슨, 『이민과 국제노동시장 1850~1939』

[사]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주요 국제 교역 상품의 가격 추이

상품명	생산지	소비지	소비지 대비 생산지 가격의 수준			
			연도	차이	연도	차이
밀	시카고	리버풀	1870	58%	1912	16%
양모	보스턴	런던	1870	59%	1912	28%
선철	필라델피아	런던	1870	85%	1913	19%
쌀	랴곤	런던	1873	93%	1913	26%
면화	알렉산드리아	리버풀	1872	63%	1912	5%
가죽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1870	28%	1913	9%

- 케빈 울로크, 제프 윌리엄슨, 『세계화와 역사』

논술의 기초

신영산, 국어선생으로 살기 <http://blog.daum.net/newmountain> 블로그

새뫼-NewMountain 저자

2015.06.13 08:26:20 발행일

 블로그